

제8회 한중일 30인 회의 개최

< 30인 회의 정책 제안 포인트 >

- RCEP, TPP 틀을 배제하지 말고 한중일 FTA교섭을 가속
- 자본유출 등 금융정세의 불안정화에 대비하여 금융협력을 강화
- 미세먼지(PM 2.5) 등 국경을 초월한 환경오염대책 연대
- 한중일 장거리 송전망 「스마트 그리드」 정비
- 한중일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「공통기본 800한자」 선정

□ 한중일 30인 회의 개요

- 2013년 7월 8일 제8회 한중일 30인 회의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
 - * 금융·무역 : 한덕수 전 총리, 사공일 전 재무장관, 홍기택 KDB금융 회장
 - * 환경·에너지 : 이홍구 전 총리,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, 이윤우 삼성전자 고문
 - * 문화·교육·민간 교류 : 우근민 지사, 오연천 서울대총장,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
- 한중일 30인 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발전과 상호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 창설 되었으며, 3개국의 政·財·官·學 각 분야의 리더 약 30명이 매년 모여 비공개로 논의하는 회의체
- 참석자는 각국의 정치원로, 경제인, 석학 등 10명의 멤버로 구성되며, 주관기관은 중앙일보(한국), 신화통신(중국), 닛케이신문(일본) 등 언론사
- 주요 토론 내용은 △동북아의 바람직한 협력방안 모색, △정치, 경제, 문화 교류의 증진방안 모색, △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방안 모색, △지역발전과 공동번영 방안 모색
- 한중일 각국 단장은 이홍구 전 총리(한국), 쩡페이옌 부총리(중국),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(일본)이며 기조강연에서 3개국 관계의 비전에 대해 발제
 - 이홍구 전 총리는 정부 간 협상이 개시된 ‘한중일 FTA’는 동북아지역공동체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영토·역사 문제의 대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서로의 공통이익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
 - 쩡페이옌 부총리는 영토·역사 문제와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는 보류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

-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작금의 정세 상태를 극복하여 성숙된 3국 관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일본의 원전 사고나 중국의 대기오염을 언급하여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
- 이번 회의기간 중 이홍구 전 총리와 쥘페이엔 부총리가 개별 회담을 하였으며, 일본 측은 한중 양국과 정상회담을 조기 실현하는 등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

□ 정책 제언 사항

- 한중일 30인 회의는 정책 제안을 채택
 - 경제 분야는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시키되,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과 TPP 등 다른 FTA 틀을 배제하지 말고 동시 진행
 - * 쥘페이엔 부총리는 "RCEP이나 TPP는 아시아 역내의 다른 FTA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협조·보완이 가능하다"며 TPP에 대해 관심을 보임
 - * 한중일 FTA 협상은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하지만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의하기 쉬운 분야부터 추진
 - 금융 분야는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이 거론되었으며, CMIM(치앙마이 이니셔티브)*의 자본금 증액과 각국의 거시 경제를 감시하는 AMRO(ASEAN+3 거시경제조사기구) 등 금융협력을 강화
 - * ASEAN+한중일이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
 - 환경 분야는 기술 연계 강화, 대기 및 해양 오염 대책, 해양 자원 공동 개발,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협력, 환경 보호 모델 도시 조성 등을 제안
 - 3개국의 상호이해와 문화적 유사성 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'공통 한자 800자'를 추출, 향후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
 - * 2010년에는 500자가 추출되었지만, 2013년 회의에서 '幸', '道', '祝' 등을 포함시킨 800자로 확대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3.7.8./9), 중앙일보(2013.7.9)

<참고> 연도별 한중일 30인 회의 개요

일시	논의 내용
제1차 회의 2006.2.12-13 (한국 서울)	- 동아시아 국가간 외화 공동관리 및 아시아 기축통화 창설 강조 - 한중일 FTA 체결 및 동북아 철강공동체 설립 제안 - 한중일 음악제 등 공동문화행사 제안
제2차 회의 2007.4.15.-16 (일본 도쿄)	- 역내 공동기금 창설 및 아시아 통화단위 조기 구성 - 동아시아 환경펀드 조성, 원유 공동구입, 환경기술혁신센터 설립 - 3국간 대규모 유학생 교환
제3차 회의 2008.4.28. (중국 북경)	- 한중일 FTA 조기 체결 - 3국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- 성과/합의 :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동북아 포럼 창설
제4차 회의 2009.4.12. (한국 부산)	-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- IMF에서의 중국 발언권 제고 필요, AMF 설립 논의를 위한 사무국 설립, 금융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7개항의 정책제안 채택
제5차 회의 2010.4.19. (일본 나라)	- 역대 한중일 30인회 제안사항의 3국 정상회의 반영 여부 평가 - 각 분과별 주요 제언 : *경제·통상 : △아시아 역내 외화준비금 공동운용 △아시아 인프라펀드 구축 △3국 공통 표준 마련 △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(ABMI)의 로드맵 구축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통합 도모 등 *환경 : △3국 탄소시장협의회 구축 △정부·기업·연구기관의 환경 협력사업을 총괄하는 '동북아 녹색성장 이니셔티브' 구축, △황사방지대책기금 설립 △친환경 에너지 개발 협력 등 *문화·교육 : △3국 공동 필수한자 500개 선정, 학교 교육에 도입, △동아시아 공통교과서 작성, △동아시아경영대학원 설립, △3국 청소년간 역사 유적지 탐방 정례화 등
제6차 회의 2011.4.24-25 (중국 항저우)	- 3국의 종합방지대책 협의체 및 재해 공동관리 시스템 구성 - 각 분과별 주요 제언 *경제·통상: △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 필요, △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로드맵 제시 *환경: △2011년 3국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안전협의체 논의, △핵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안전 의제 상정 *문화·교육: △문화충돌 방지를 위한 3국 문화자문위 구성
제7차 회의 2012.4.16. (한국 서울)	-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한중일 3국 협력 - 각 분과별 주요 제언 : *금융·무역: △국제 금융위기 사전예방 감시체제 강화, △아시아 금융연구·훈련센터와 아시아투자펀드 설치 필요성 합의, △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기대 *환경: △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3국간 표준화 노력, △3국간 공동 협의체를 통한 원자력 에너지 안정성 확보, △국가간 에너지 슈퍼그리드화(supergrid)를 목표로 논의 시작 필요 *문화·교육: △3국간 문화재 공유 및 교류촉진 프로그램 창설, △문화·교육 분야 관련 별도 회의 개최 제안

자료 :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홈페이지